

금융위기를 미술로 꿰뚫다...수퍼플렉스 개인전

August 18, 2019 | 박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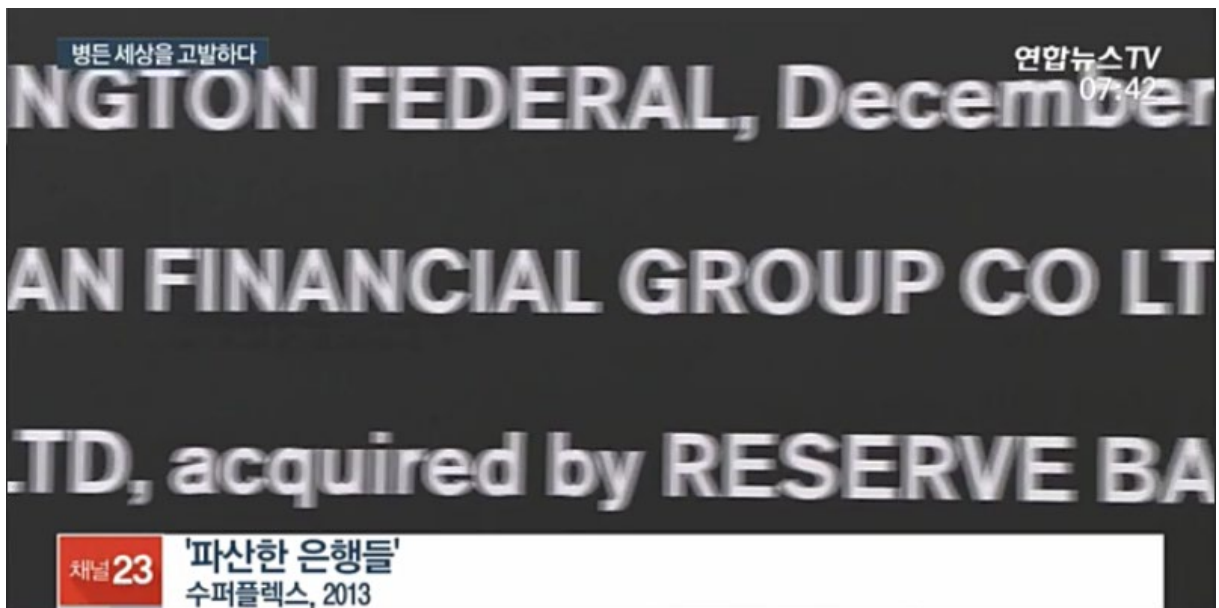
page 1 of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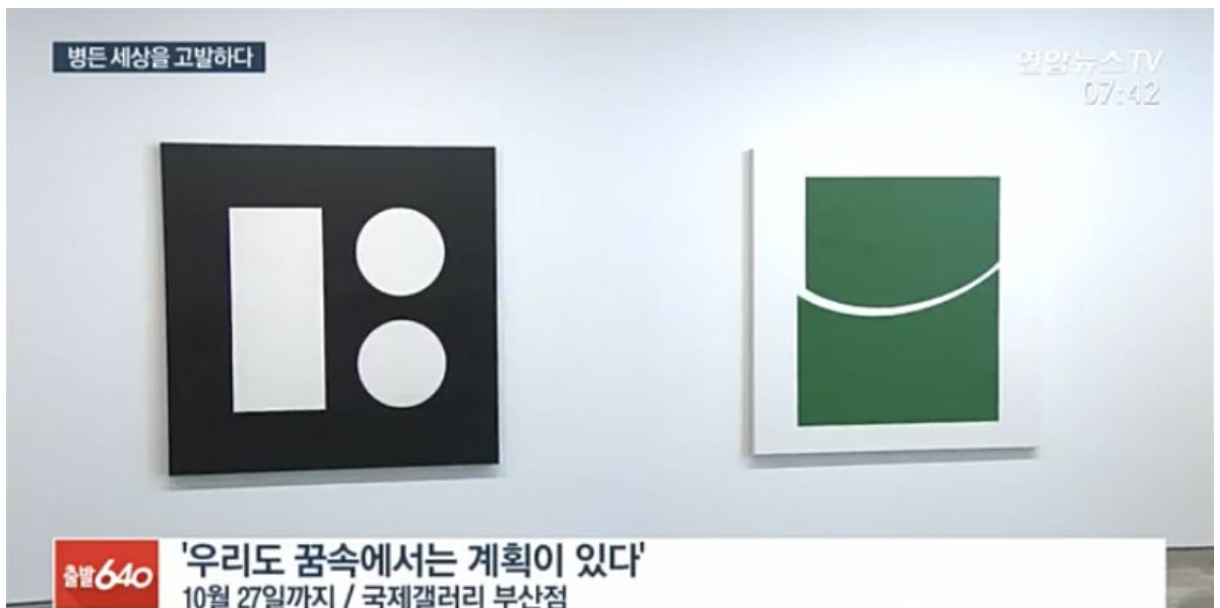






병든 세상을 고발하다 C, September 15, 2008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cquired by FEDERAL RESERVE SYSTEM, September 16, 2008 • HBOS, acquired by LLOYDS TSB, September 18, 2008 • AMERIBANK, acquired by PIONEER COMMUNITY BANK, September 19, 2008 • WASHINGTON MUTUAL, acquired by JP MORGAN CHASE, September 25, 2008 • BHADRAK URBAN CO-OP BANK LTD, acquired by RESERVE BANK OF INDIA, September 25, 2008 • LEHMAN BROTHERS (EUROPE), acquired by NOMURA HOLDINGS, September 26, 2008 • BRADFORD & BINGLEY, acquired by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GRUPO SANTANDER, September 28, 2008 • FORTIS, acquired by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AND BNP PARIBAS, September 28, 2008 • DEXIA, acquired by THE GOVERNMENTS OF FRANCE, BELGIUM AND LUXEBURG, September 30, 2008 • WACHOVIA, acquired by WELLS FARGO, October 3, 2008 •















[앵커]

경제권력과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과제를 주제 삼아 온 덴마크 작가 그룹이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르락 내리락, 그래프를 떠올리는 하늘색 설치 작품. 수십 배를 뛰었다 떨어졌다는 반복한 비트 코인의 변동성을 표현했습니다. 까만 바탕에 흰색으로 뾰뾰하게 새긴 글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수합병을 거듭한 은행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덩치가 큰 은행은 세를 불려 나갔고 작은 은행은 사라져갔는데, 지금은 파산한 우리나라 은행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권력 시스템 등 인류적 과제를 현대미술로 품어 온 덴마크 작가 그룹 수퍼플렉스가 부산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가 선진 금융을 향한 믿음,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를 앗아갔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코브 뎡거 / 작가>

“덴마크 은행, 한국은행 등 모두 나비효과처럼 모두 연결돼 있었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퍼플렉스는 지난 5월 파주 도라산에 3명이 발을 굴러야만 탈 수 있는 그네 작품을 설치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술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언젠가 북한에서도 전시를 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 / 작가>

“북한에 전시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큐레이터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주 도라산 전시가 필요했어요.”

현대 사회 속 작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들의 다음번 주제는 기후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